

전일동향

전일대비 3.40원 하락한 1,417.90원에 마감

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3.40원 하락한 1,417.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보험인 1,421.30원에 개장했다. 한-미 무역협상 기대 및 국내증시 호조에 환율은 하락했다. 고점 인식에 따른 네고 물량 유입에도 불구하고 달러 매수세에 하단이 제한되며, 1,417.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8.2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21.30	1422.20	1414.70	1417.90	1419.10
	엔화	940.83	943.90	936.20	942.37	-
	유로화	1655.33	1658.23	1649.82	1657.0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6	-5.3	-11.41	-21.68
	결제환율(수입)	-0.73	-4.42	-9.58	-18.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에...1,41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17.90) 대비 1.05원 하락한 1,414.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약달러 흐름에 따라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지역은행인 자이언스뱅크와 웨스트얼라이언스뱅크 모두 부실 대출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미국 50개 지역은행으로 구성된 KRW 지수 추종 ETF는 5% 이상 급락했다. 한편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윌러 이사는 무역 분쟁이 경제 성장의 하방을 키운다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2년물은 7.50bp, 10년물은 5.40bp 하락해 각각 3.42%, 3.97%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투자심리 위축에 다우지수 -0.65%, 나스닥 -0.47%, S&P -0.63%로 마감했다. 한편 프랑스 내각 불신임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해소됐으며, 이에 유로화는 강세를 지속했다. 금일 환율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업체의 네고 유입 및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11.60 ~ 1420.8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532.8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5원 ↓
	■ 美 다우지수 : 45952.24, -301.07p(-0.6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2.7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8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